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읽기: 구속과 성경 읽기

☞ 전성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기독교 세계관의 고전이 된 월터스의 책 『창조-타락-구속』의 영문 제목은 “회복된 창조” 또는 “되찾은 창조”(Creation Regained)이다. 이 제목은 구속이 다름 아닌 창조를 되찾는 회복임을 암시한다. 실제로 월터스는 구속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구속은 회복, 즉 창조에다 어떤 것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 세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회복은 창조 세계의 어떤 영역에 국한되기보다 창조 세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115쪽)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창조 세계의 회복”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121-127쪽). 구속과 창조가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미 선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왜곡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구속의 핵심 의미가 된다. 그리고 창조-타락-구속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와 관련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 하나님이 창조하시 않으신 것이 없고(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도 성경 읽기만큼이나 거룩한 것이며), 모든 것이 타락했으며(그래서 타락한 성경 읽기라는 표현도 가능하며), 구속의 영역 또한 온 창조 세계를 아우른다(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방향이 왜곡된 성경 읽기는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구속의 범위와 의미뿐 아니라 구속의 방법과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방향에도 주목하고 싶다. 요컨대, 기독교의 구속은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월터스 또한 십자가와 창조-구속의 관계를 명시한다. “따라서 구속은 죄를 무효화하고 모든 곳에 미친 죄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통해 창조 세계의 선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로 돌아가는데, 이는 오직 속죄만이 죄와 악을 그 뿌리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133쪽)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십자가의 구속이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자.

성경 읽기와 십자가의 구속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 죽었다는 십자가 사건이 약자의 희생과 강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해 왔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권면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폭력을 참고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심판한다는 명분으로 증오를 정당화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완전히 잘못된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고먼, 589쪽). 그렇다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첫째, 십자가의 구속은 권력지향적, 승리주의적 성경 읽기를 거부한다. 이런 찬송이 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에 주술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는 죽음의 비유적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그의 보혈은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그리스도가 대신 당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죽음이 참된 승리라는 비밀을 알려준다. 죽음이 승리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야만 승리하고 성공한 것이라는 가치관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하셨다(히 2:15-16). 마이클 고먼은 그의 책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Cruciformity*)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능력(권세, 힘)의 의미를 재정의함으로써 십자가를 남용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의 구조들을 무너뜨려 버린다.”(592쪽)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 권력지향적, 승리주의적 성경 읽기를 거부하는 이유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리고의 승리(수 6장)에 도취되어 아이성의 패배(수 7장)와 세겜의 경고(수 24장, 23장도 참고)를 흘려버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새 예루살렘의 “순 황금길”(계 22:21)에 눈이 멀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계 5:12). 실로 역사의 주인

되신 유대 지파의 사자(lion)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던 것이다(계 5:5-6). 성경을 읽을수록 삶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이유를 꾸역꾸역 찾아낸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구속에 토대한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라 자아실현과 입신양명이라는 욕망의 성경 읽기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인 이유는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시험에 대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기 때문이다(마 4:8-9).

둘째, 십자가의 구속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추구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이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 고통이 설령 징벌로 보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 구해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히 13:12). 고먼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고난을 정당하게 여기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당하는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591쪽).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행동을 기준으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비유가 나온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신다(마 25:31-46).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 대부분은 벌 받을 염소가 아니라 복 받을 양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 대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정작 이 비유를 처음에 들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에서 교훈이 아니라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그들은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할 위치가 아니라 돌봄을 받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고난 받는 사람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 함께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고먼은 “약자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을 받아야” 하며(594쪽)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위하여 자비와 정의를 추구한다.”고까지 말한다(616쪽).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세상에서 고난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한 고난 받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경 읽기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복음의 총체성을 깨닫는 성경 읽기와 함께한다(복음 자체가 이미 총체적이기 때문에 “총체적 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의 총체성”이 좀 더 나은 표현이다). 복음주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의 책 『하나님의 선교』에서 십자가가 세상이 처한 총체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설명한다. 해결되어야 하는 세상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다. “죄는 처벌받아야 하고 죄인들은 용서받아야 한다.”, “악은 물리쳐야 하고 인류는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사망은 파괴되어야 하고 생명과 불멸이 나타나야 한다.”, “원수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화해되어야 한다.”, “피조물 자체는 회복되어야 하고 창조주와 화해되어야 한다.” 라이트는 십자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한다. 성경을 편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악에 대해 승리하셨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여러 집단들 사이의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은 온 창조 세계를 썩어짐과 탄식에서 해방시킨다. 십자가 구속이 이렇게 총체적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성경 이야기를 읽을수록 온 창조 세계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반응하는 복음의 광대함에 빠져들어야 한다.

나가며

십자가는 개인적인 죄의 해결책으로 끝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미련하고 악하고 없는 것들이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선언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수록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권력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며, 번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에 몸을 담그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적 성경 읽기의 결정판이다.



전성민 서울대학교에서 수학(B.Sc.)을, 캐나다 리젠티칼리지에서 성경언어와 구약학(M.C.S., Th.M.)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구약학(D.Phil.)을 전공했다. 최근 역서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가 있으며 옥스포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연구서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를 Oxford Theology and Religion Monographs 시리즈로 출판하였다.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섬기며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 주해를 접목한 강의를 하고 있다.